성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안전한 성행위 의도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in the Non-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김예진

삼육보건대학교 간호과

Ye-Jean Kim(yejean73@sh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안전한 성행위 의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중 성 경험이 없는 6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주제가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자료수집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태도($r=.312, p<.001$), 주관적 규범($r=.320, p<.001$), 지각된 행위통제($r=.412,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성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에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

■ 중심어 : | 대학생 | 태도 | 주관적 규범 | 지각된 행위통제 | 안전한 성행위 의도 |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in non-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604 students of university in Seoul. Considering the extremely private and sensitive topic of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through online and mobile media form April 1 to 14, 2013. Collected data were analyzes using the SPSS 21.0 Programs. As a results,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had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sa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the of this study are us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sexual health, such as sex education programs or sex counseling programs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s | Attitude | Subjective Norms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Intention of Safer Sexual Behavior |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의 축약본임

* 본 논문은 2014년도 삼육보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4년 0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8월 08일

수정일자 : 2014년 08월 08일

교신저자 : 김예진, e-mail : yejean73@sh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신체적으로는 성적인 잠재기에서 벗어나 이성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성충동을 느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1].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의식이 강해지고 성적 성숙으로 인해 신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충동들이 일어난다[2]. 게다가 일찍이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강한 성적 충동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경험들을 접하여 심리적인 혼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3], 혼전 성관계, 원치 않는 임신, 유산, 성 전염성 질환, 인터넷 음란문화로 인한 피해, 데이트 성폭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당면하는 시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

현재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 성(性)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그 심각성은 여러 조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4].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2005년 발표된 미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인공임신중절 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5].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의 성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행동 연구들은 혼전 성경험을 청소년 비행문제로 파악하거나 성행동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여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7].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성(性)과 관련된 주제들이 일부 의학적인 분야가 아니면 연구나 교육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4]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은 간과한 채 대학생의 성경험은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무조건 성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성행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중재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횡단적으로 수집한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로서 성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의 주제가 성(性)과 관련되어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서면을 통한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수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대상자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문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로그램은 개인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에는 총 607명이 응답하였으나 응답자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604명의 설문내용이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가보고형 설문으로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8문항, 주관적 규범 2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4문항, 안전한 성행위 의도 3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1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신화(2004)의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평가적 차원의 semantic differential type scale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내는 8쌍의 형용사 짝에 대하여 +3점에서 -3점을 주었다. 태도는 8개 문항의 합으로 나타내며 최고 +24점에서 최저 -24점까지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로 나타났으며[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로 나타났다.

4.2 주관적 규범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평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귀하에게 충고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따르려고 합니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순응 동기 1문항, 안전한 성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변사람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나의 주변사람들은 내가 성관계를 한다면 안전한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규범적 신념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순응 동기 4점 척도 문항과 규범적 신념을 묻는 7점 척도 문항의 곱으로 측정되며 최고 +9점에서 최저 -9점까지 나타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4.3 지각된 행위통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당신은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쉽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내가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의 7점 총화평정척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최고 +12점에서 최저 -12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쉽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로 나타났으며[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로 나타났다.

4.4 안전한 성행위 의도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신화(2004)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를 가진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할 계획이다.”,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적어도 성관계를 할 때 안전한 성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의 3개 문항으로 최고 +9점에서 최저 -9점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로 나타났으며[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3) 주요 연구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16명(19.2%), 여성 488명(80.8%)이었으며, 나이는 24세 이하 558명(92.4%), 25세 이상 46명(7.6%)이었다.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267명(44.2%), 보건복지계열 212명(35.1%), 문화예술계열 56명(9.3%), 과학기술계열 69명(11.4%)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17명(19.3%), 2학년 134명(22.2%), 3학년 216명(35.8%), 4학년 137명(22.7%)이었으며, 학기 중 거주형태는 가족과 거주 472명(78.1%), 하숙/자취 49명(8.1%), 기숙사 75명(12.4%), 기타 8명(1.3%)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은 281명(46.5%),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이 42명(7.0%),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음'이 133명(22.0%),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음'이 148명(24.5%)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가 552명(91.4%), 있는 경우가 52명(8.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성	116	19.2
	여성	488	80.8
나이	24세 이하	558	92.4
	25세 이상	46	7.6
계열	인문사회	267	44.2
	보건복지	212	35.1
	문화예술	56	9.3
	과학기술	69	11.4
학년	1학년	117	19.3
	2학년	134	22.2
	3학년	216	35.8
	4학년	137	22.7
거주 형태	가족과 거주	472	78.1
	하숙/자취	49	8.1
	기숙사	75	12.4
	기타	8	1.3
이성 교제 경험	과거유 현재무	281	46.5
	과거무 현재유	42	7.0
	과거유 현재유	133	22.0
	과거무 현재무	148	24.5
부정적 성경험	무	552	91.4
	유	52	8.6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평균 12.86점(± 10.51)으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평균 3.67점(± 2.75)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평균 4.98점(± 4.89),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평균 7.57점(± 2.49)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	M $\pm$ SD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12.86 $\pm$ 10.51
주관적 규범	3.67 $\pm$ 2.75
지각된 행위통제	4.98 $\pm$ 4.89
안전한 성행위 의도	7.57 $\pm$ 2.4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는 24세 이하 집단보다 25세 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고($t=-2.290$, $p<.05$), 보건복지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5.831$, $p<.01$),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380$, $p<.05$).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Mean±SD	t or F
성별	남성	13.34±10.58	.553
	여성	12.74±10.50	
나이	24세 이하	12.63±10.65	-2.2290*
	25세 이상	15.59±8.19	
계열	인문사회 ^a	12.24±11.08	5.831** (b)c
	보건복지 ^b	14.68±8.79	
	문화예술 ^c	8.48±13.10	
	과학기술 ^d	13.22±9.64	
학년	1학년	10.88±10.42	2.391
	2학년	12.28±10.69	
	3학년	13.89±10.47	
	4학년	13.48±10.30	
거주 형태	가족과 거주	12.84±10.53	.343
	하숙/자취	12.86±9.16	
	기숙사	13.33±11.08	
	기타	9.38±12.92	
이성 교제 경험	과거유 현재무	12.78±10.43	.570
	과거무 현재유	12.62±10.12	
	과거유 현재유	12.13±10.69	
	과거무 현재무	13.74±10.65	
부정적 성경험	무	15.50±8.12	-2.380*
	유	12.61±10.68	

* $p<.05$, ** $p<.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관적 규범의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077$, $p<.05$),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의 차이 분석

		Mean±SD	t or F
성별	남성	3.15±3.13	-2.077*
	여성	3.80±2.64	
나이	24세 이하	3.66±2.78	-.446
	25세 이상	3.85±2.40	
계열	인문사회 ^a	3.68±2.78	1.093
	보건복지 ^b	3.87±2.67	
	문화예술 ^c	3.18±2.70	
	과학기술 ^d	3.46±2.89	
학년	1학년	3.42±2.94	.601
	2학년	3.61±2.86	
	3학년	3.73±2.71	
	4학년	3.86±2.55	
거주 형태	가족과 거주	3.68±2.78	.977
	하숙/자취	3.57±2.90	
	기숙사	3.85±2.38	
	기타	2.13±3.09	
이성 교제 경험	과거유 현재무	3.78±2.58	.356
	과거무 현재유	3.48±2.38	
	과거유 현재유	3.69±2.75	
	과거무 현재무	3.52±3.15	
부정적 성경험	무	3.25±3.00	1.163
	유	3.71±2.72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각된 행위통제의 점수는 이성교제 경험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는 집단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752$, $p<.05$),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 차이 분석

		Mean±SD	t or F
성별	남성	5.44±4.90	1.127
	여성	4.87±4.88	
나이	24세 이하	4.92±4.92	-.970
	25세 이상	5.65±4.42	
계열	인문사회 ^a	5.09±5.18	.348
	보건복지 ^b	5.07±4.24	
	문화예술 ^c	4.48±5.41	
	과학기술 ^d	4.68±5.21	

학년	1학년	4.82±5.04	.479
	2학년	4.74±5.03	
	3학년	4.95±4.71	
	4학년	5.39±4.92	
거주 형태	가족과 거주	5.05±5.00	.363
	하숙/자취	4.92±4.18	
	기숙사	4.77±4.62	
	기타	3.38±5.32	
이성 교제 경험	과거유 현재무 ^a	4.99±4.65	3.752 [*] (c)d)
	과거무 현재유 ^b	5.31±5.13	
	과거유 현재유 ^c	5.94±5.17	
	과거무 현재무 ^d	4.01±4.86	
부정적 성경험	무	3.38±5.17	2.472
	유	5.13±4.84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2.332$, $p<.05$), 1학년이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2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6.864$, $p<.001$).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정적 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302$, $p<.01$).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 점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 차이 분석

		Mean±SD	t or F
성별	남성	6.98±3.14	-2.332 [*]
	여성	7.70±2.29	
나이	24세 이하	7.54±2.53	-.737
	25세 이상	7.83±1.83	
계열	인문사회 ^a	7.54±2.64	1.590
	보건복지 ^b	7.81±1.93	
	문화예술 ^b	7.32±3.29	
	과학기술 ^d	7.13±2.63	
학년	1학년 ^a	6.91±3.09	6.864 ^{***} (a(c,d))
	2학년 ^b	7.24±2.94	

	3학년 ^b	7.72±2.20	(b(d))
	4학년 ^d	8.20±1.52	
거주 형태	가족과 거주	7.51±2.57	.996
	하숙/자취	7.82±1.815	
	기숙사	7.87±1.98	
	기타	6.63±4.78	
이성 교제 경험	과거유 현재무 ^a	7.69±2.14	.671
	과거무 현재유 ^b	7.26±3.35	
	과거유 현재유 ^c	7.38±2.92	
	과거무 현재무 ^d	7.59±2.41	
부정적 성경험	무	8.15±1.16	-3.302 ^{**}
	유	7.51±2.57	

7.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r=.250$, $p<.001$), 지각된 행위통제($r=.383$, $p<.001$) 및 안전한 성행위 의도($r=.312$, $p<.01$)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r=.328$, $p<.001$), 안전한 성행위 의도($r=.320$, $p<.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행위통제와 안전한 성행위 의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12$, $p<.001$).

표 7. 주요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250 ^{***}		
지각된 행위통제	.383 ^{***}	.328 ^{***}	
안전한 성행위 의도	.312 ^{***}	.320 ^{***}	.412 ^{***}

*** $p<.001$

VI. 논의

연구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총 9점 만점에 평균 7.57점(± 2.49)으로 선행연구[8]에서 성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평균 7.09점(± 2.56)인 것에 비해 안전한 성행위 의도의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전한 성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콘돔 사용과 관련하여 이해경[5]이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성경험군보다 비경험군에서 콘돔 사용에 대한 의도가 높게 조사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경험자들의 경우 그동안의 성교육 혹은 동료나 매스컴을 통해 콘돔이 성관계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 미래에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것[5]으로 비경험군의 경우 성경험군보다 성 전염성 질환, AIDS 및 임신이나 유산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콘돔 사용과 같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유익성을 더 크게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의도와 태도와의 관계에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았는데, 이는 이신화[7]의 연구에서 성행위 태도가 성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유의한 결과이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주관적 규범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크면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5]에서 동료 규범이 미래의 콘돔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상자가 쉽다고 인식할수록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나이, 계열, 부정적 성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집단이 24세 이하 집단보다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허용도'나 '혼전 성관계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들[3][9]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볼 때 25세 이상의 연령까지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은 성(性)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 성관계 등에 매우 신중하며, 혼전 순결 등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안전한 성행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에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계열에 따라서는 보건복지 계열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보건복지 계열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과정 내에서 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 안전한 성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므로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0]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주의 수업이나 전공수업을 통한 인식의 변화로 피임실천에 대한 신념을 고착시키기도 한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 등의 부정적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성피해 경험이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11]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부정적 성경험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노출되므로 경험적으로 안전한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이를 통해 안전한 성행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관적 규범은 성별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순결이나 임신 문제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주변의 의식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2]와 일치하는 결과로 성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경우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에게 성적(性的)으로 더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주변의 압력이나 규범으로부터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성에 대하여 남녀가 동일한 시각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성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이성교제 경험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성교제 경험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는 경우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경우보다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해 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은 이성교제를 하면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갈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6] 감정을 교류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상호간의 요구를 절충하는 의사소통의 전략들을 실제적으로 터득하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성(性)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성별, 학년, 부정적 성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높았는데 이는 Sunmola의 연구[13]에서 남학생들이 위험한 성행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들이 실제로 임신이나 유산 등의 위험 부담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혼전 순결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의 경우 1학년 보다 3, 4학년의 경우 안전한 성행위 실천 의도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14][15]에서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위험한 성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정적 성경험을 하게 된 대상자들은 부정적 성경험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문제들을 겪게 되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성 관계 만큼은 본인의 의지 하에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규범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남학생을 대상으로 소그룹 성교육이나 성상담 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안전한 성행위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하고, 성 이중기 준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남녀 상호간에 성 건강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간호중재 전략들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60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설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평균 12.86점이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평균 3.67점, 지각된 행위통제는 평균 4.98점,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평균 7.57점이었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태도는 나이, 계열, 부정적 성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규범은 성별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행위통제는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성별, 학년, 부정적 성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6)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실천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성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생들이 스스로 안전한 성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대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올바른 주관적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다.
- 2) 대학생들의 안전한 성행위 의도와 실제적인 안전한 성행위 실천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인 설계에 의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수진, 문승태, 강희순,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Vol.20, No.4, pp.434-443, 2011.
- [2] 최정현, 김경은, 신민아, “대학생의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9, No.3, pp.511-522, 2010.
- [3] 호선민,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허태균, 조자의, “한국대학생들의 콘돔협상전략 탐색: 콘돔연구에서 협응적 관점의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Vol.13, No.1, pp.43-61, 2007.
- [5] 이혜경, “남자대학생의 성 경험 유무에 따라 콘돔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16, No.2, pp.194-203, 2010.
- [6] 조승희, 이성교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7] 이신화,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성행동 영향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8] 김예진, “성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와 안전한 성행위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 pp.356-366, 2014.

- [9] 장수현, 이성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17, No.4, pp.395-406, 2011.
- [10] 황신우, 정재원, “미혼남녀의 피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간호학의 지평, Vol.9, No.2, pp.71-82, 2012.
- [11] 장진숙, 박경, “남녀 대학생 성피해 경험과 성인지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232-233, 2007.
- [12] 박지현, 대학생 커플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과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대화에 따라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3] A. M. Sunmola, “Evaluation the sexual behavior, barriers to condom use, and its actual use by university students in Nigeria,” AIDS Care, Vol.17, No.4, pp.457-465, 2005.
- [14] 강효운, 일부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특성과 성경험 예측요인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5] L. M. Langer, G. J. Warheit, and L. P. Mcdonaid,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risky sexual practices among multi-racial/ethnic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9, No.2, pp.133-144, 2001.

저 자 소 개

김 예 진(Ye-Jean Kim)

정희원

- 1999년 8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PBL